

##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을 통해 본 現代衣裳의 逸脫性

李 相 禮

東明情報大學校 패션디자인學科 副教授

### Aesthetic deviation of modern fashion design through Rei Kawakubo

Lee, Sang-Rye

Associate professor, Dept.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of IT

#### Abstract

Rei Kawakubo is known for her provocative aesthetics: she often deliberately seeks beauty in what is seen by convention as taboo. With her highly informed and invariably provocative aesthetic, Rei Kawakubo has advanced historical forms of dress using radical functional and structural transpositions. She is considered as a pioneer showing firmly important elements of modern fashion design in her works by fashion journalists. In this paper, I'd like to analysis features of modern fashion design through Rei Kawakubo's works. I will analysis important elements of Rei Kawakubo's design and devote study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feature of her design and the feature of modern fashion design.

**Key words:** asymmetry(비대칭), deviation(일탈), incompleteness(미완성), Imperfection(불완전), Irregularity(불규칙)

#### I. 서론

1942년 도쿄에서 출생한 레이 가와쿠보는 게이오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하였으며 졸업 후 섬유회사의 홍보 분야에서 일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73년 꿈무늬(Comme des Garçons)사를 창립하였다. '꿈무늬(Comme des Garçons)'의 직역적 의미는 '소년과 같이'이다. 그 이름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레이 가와쿠보의 옷들은 의복에 있어 색상은 약화되고 형태는 추상적인 남성복의 합리성을 연상시키는 경향이 많이 보여 진다.

1981년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가 어느 체형이나 입을 수 있는, 체형과 사이즈를 무시한 헐렁한 검정색 옷들을 파리 콜렉션에 처음 선보였을 때 세계 패션계는 신선한 충격으로 이 일본디자이너를 주목하

기 시작하였다.

1983년 런던 타임즈 특파원 수지 멘키즈(Suzy Menkes)는 가와쿠보의 콜렉션을

“모델들은 마치 여전사와 같이 몸매의 선이나 실루엣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커다란 사각형의 짙은 블랙 코트 드레스를 입고 무대를 따라 울동적으로 행진해 온다. 가와쿠보가 진부한 여성적 컨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상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 프랑스 사람들은 전통적인 경향을 고수하고 있다.”<sup>1)</sup>고 평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가와쿠보의 옷은 몸에 잘 맞아야 한다는 그 때까지의 옷에 관한 서구 미학의 대 원칙을 무너뜨린 하나의 혁명이었으며 일본 전통 복식에서 영감을 얻고 있지만 그것에서 발전되어 현대적인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이 콜렉션 이후 레이 가와쿠보는 세계의 주목 속에

서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과 함께 1980년대의 패션혁명을 주도해 나간다.

1987년에는 뉴욕에서 열린 20세기의 위대한 세 명의 여성들(Three Women: Madeleine Vionnet, Claire McCardell, and Rei Kawakubo)이란 전시회에 초대되는데, “초대된 세 명은 모두 그들 시대에 의상의 새로운 컨셉과 비전을 제시하고 의상을 재 고안, 재구성한 디자이너들이다. 그들은 의상 디자인을 컨셉적이고 근원적인 사업으로서 제시했으며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작업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실현하였다. 그들은 의복에 관한 새로운 지성과 새로운 방향을 촉진시켰으며, 그들의 여성에 대한 구조와 몸매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분석적인 고찰들은 패션에 대한 용감하고도 지속적인 인식이었다.”<sup>2)</sup>고 평가받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가와쿠보는 현대 패션에 새로운 룰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움에서 20세기의 위대한 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 Radical Fashion 전에 초대받는다. Radical Fashion 전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마르탱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폼뎀페 가르송 디자이너) 등 혁신적인 디자인 세계를 펼치는 디자이너 11명이 초대된 전시로 현대패션의 아방가르드 경향을 잘 보여준 전시였으며, 레이 가와쿠보가 데뷔 후 근 20여년을 세계 패션을 이끌어 가는 디자이너 중 한 사람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일본 출생의 패션디자이너 레이 가와쿠보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새로움의 추구, 독특한 발상으로 패션의 기본을 허무는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며 복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오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레이 가와쿠보의 조형세계를 관통하는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의상의 한축으로 나타나는 조형적 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레이 가와쿠보 작품집과 컬렉션을 중심으로 여성복디자인 분석을 통해 레이 가와쿠보가 옷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나아가 보편적인 현대의상의 특성과의 연관점을 연구하려 한다.

## II. 레이 가와쿠보의 조형세계

### 1. 규칙에서 벗어난 일탈의 형태: 불균형, 불완전, 비대칭, 미완성

1980년대 초 아직은 정형화된 의복의 컨셉 속에서 레이 가와쿠보는 기존의 관념을 거부하는 구조적이며 착장형식에 따라 실루엣이 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였다. 레이 가와쿠보가 세계무대에 진출한 1980년대 초는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정치상황이 새롭게 재편되었으며,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전반적인 기계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는 방식이 두드러졌으며 모더니즘적 문화와 사교방식의 틀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 3국의 문화양식을 현대적으로 제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sup>3)</sup>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일본 디자이너들이 세계무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는데 레이 가와쿠보는 1981년 파리 컬렉션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첫 컬렉션부터 체형과 사이즈를 무시한 헐렁한 검정색 옷들로 주목 받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오버사이즈의 패션은 넓은 어깨와 넓은 소매와 함께 1980년대 패션의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사진 1>은 검정색 울의 기하학적 라인의 코트로 다아트가 없는 평면적인 구성이다. 이는 전통 일본복식을 기본으로 한 비대칭 스타일로 체형과 사이즈, 성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이 때까지의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의복이 아닌, 인체의 특성이 무시된 헐렁하게 몸을 감싸며 의복 속에서 인체의 자유로움을 부가하고 있다.

또한 검정색 울 코트와 함께 실용적인 하위문화의 상징인 흰색의 양말과 캔버스 천의 운동화를 코디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영역의 요소들이 결합하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고 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의 공존은 1990년대의 패션에 보편성으로 나타난다.

<사진 2>는 20세기 패션사의 한 장을 달리한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구멍 나고 찢어진 미완의 스웨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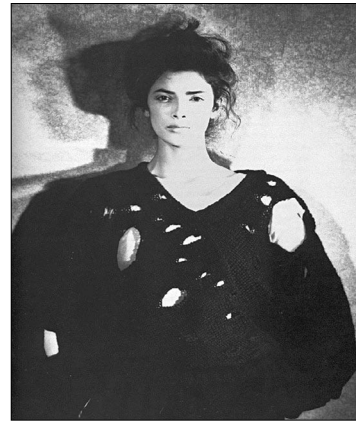
<사진 1> Black Wool Geometric Coat, 1983년 F/W

서 82년 발표 당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디자인이다. 레이 가와쿠보 자신은 ‘레이스(Lace)’ 스웨터라 부르고 있는데,<sup>4)</sup> “레이스 스웨터는 여하간에 빅토리아 시대에 집착하는 부자연스러운 개방형 옷과 복잡한 개방형 옷 사이의 묘한 거리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찢어짐의 실현성은 마치 시대성과 적절함에 있어 특유의 연속성을 산출하기 위한 것 같이 레이 가와쿠보에게 가장 어울린다.”<sup>5)</sup>

해롤드 코다(Harold Koda)는 1985년 “레이 가와쿠보와 빈곤의 미학”이라는 에세이에서 레이스 스웨터에 대한 탈 정치적, 동양의 철학적 의미를 주장한다. 약한 세기 이전인 1890년대에는 퇴폐를 미학적 이상으로 간주하였으나 1990년대 패션은 그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벗음과 폐허의 모두를 창조적 근원으로 보기 시작하였다.<sup>6)</sup>

이 찢어지고 구멍난 스웨터는 의복의 파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1990년대엔 일반화된 패션의 담론인 해체주의의 효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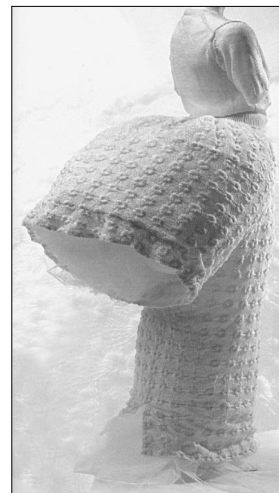
1980년대의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이 일본 전통 복식에 기초한 평면형의 인체를 감싸 안는 비정형, 비대칭, 불균형의 극도로 장식이 배제된 절제된 선과 색상의 디자인으로 미니멀리즘적인 의상을 시도하였다면, 1990년대의 미니멀리즘이 주도한 트렌드 속에서 레이 가와쿠보는 80년대에 보여주었던 의복의 기존 개념에 대한 거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옷과 신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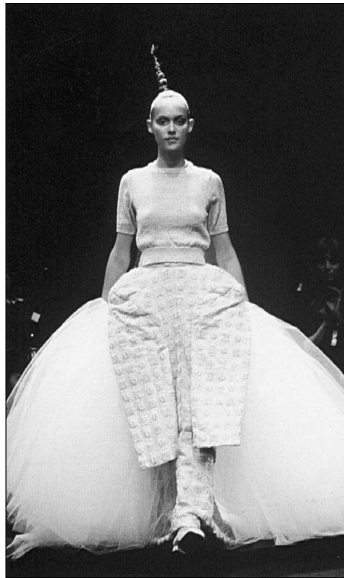
<사진 2> “Lace” Sweater, 1982년 F/W

상호관계에 대한 근본 개념에 대한 의식적인 도전의식의 경향을 보여준다. 레이 가와쿠보의 1995년 디자인을 보면(사진 3) 베이비 핑크 칼라의 아크릴 스웨터와 흰색의 페티코트로 안을 부풀린 커다란 원통이 달린 나일론 소재의 스커트로서 스커트의 형태는 19세기 말의 버스를 연상시키며 나무나 금속의 두터운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닌 공기와 같이 가벼움이 연상된다.

‘옷은 몸을 가리거나 꾸미기 위하여 몸에 걸치거나 입는 물건’<sup>7)</sup>으로서 인체에 입혀짐으로서 가시적으로는 외부와 인체가 분리되는데, 여기서는 뒷 허리에 매단



<사진 3> Baby Pink Sweater & Skirt 1995년 F/W



<사진 4> Sweeter than Sweet, 1995년 F/W

원통을 통해 옷의 안과 밖이 열려져 있는 옷의 기본 개념을 벗어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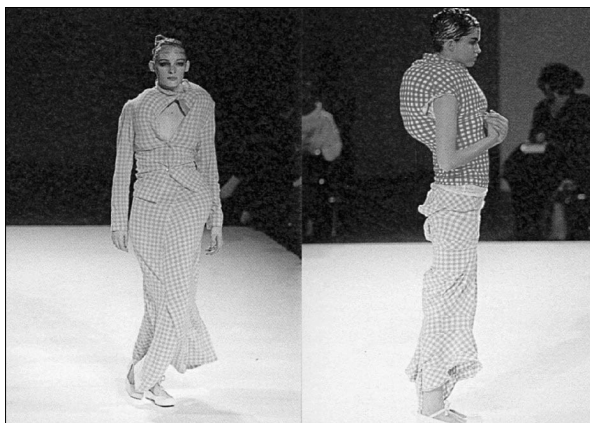
같은 컬렉션의 디자인으로 <사진 4>는 옷의 기능의 전환을 보여준다. 평면적인 소매가 달린 코트 같은 형태의 스커트(혹은 바지)와 허리가 된 네크라인, 그리고 앞이 된 뒤판 등, 규칙에서 벗어난 일탈의 형태를 보여준다.

옷과 신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레이 가와쿠보의 도전은 지속적으로 보여 지는데, <사진 5>에서는 나일론, 우레탄의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한쪽 어깨, 등, 한쪽골반, 가슴 위 등 지금까지 전혀 강조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위에 안으로 다운 패딩(down padding)하여 일그러지고 왜곡된 변종의 불균형 실루엣을 창조해 내었고 미적 가치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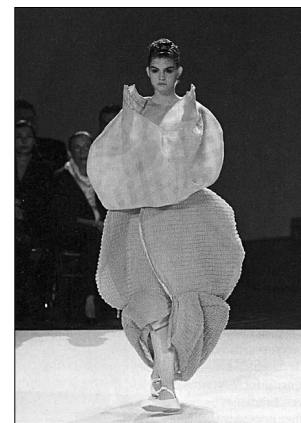
20세기 패션은 신체를 발견하고 신체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지만 20세기 말까지도 의복은 신체의 형태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 진다. 레이 가와쿠보는 신체가 옷을 구속하고, 옷이 신체를 구속하고 있는 상호관계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sup>8)</sup>

<사진 6>은 인체에 입혀진 옷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각 작품을 연상시킨다. 팔의 자유로운 동작을 제한하는 감싸여진 상의와 볼륨감 있는 스커트로서, 데뷔 초기 의복 속에서 인체의 자유로움을 부가하였던 레이 가와쿠보는 여기에서 다시 인체를 구속하는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사진 7>은 오프 화이트 칼라의 면 원피스 위에 동 소재를 9겹쳐 맨 위의 1매는 비닐 코팅하여 프린트 한 뒤 주름을 잡아 상체와 하체를 감싸고 있다. 몸통의 주름으로 신체의 선은 무시되고 볼륨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가 끊어진 하나의 원통으로 인지될 뿐으로



<사진 5> Body Meets dress, 1997년S/S



<사진 6> New Body Form, 1997 S/S



〈사진 7〉 Pleats Dress, 1998 S/S

패션의 개념을 뒤집고 기존의 방식을 던져버렸다.

〈사진 8〉 1998년 콜렉션으로 천연소재의 면으로 염색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드레스이다. 여러겹 겹쳐 입은 드레스의 끝 솔기는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착장 역시 덜 여머진 듯하게 마무리 하여 미완성의미를 잘 살려내고 있다.

## 2 색상의 부재: 압도적인 블랙의 확장

검정색은 종말, 슬픔, 더러운, 나쁜, 불행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성직자들이 입는 의복의 기본색이며 우아함도 가지고 있다.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는 '검정은 단순함과 우아함의 정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검정은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색으로 검은 옷을 입으면 안전하다'고 말한다.<sup>9)</sup>

검정색을 좋아하고 검정색이 잘 팔리기 때문에 검정색을 많이 쓴다는 레이 가와쿠보는 80년 데뷔 초기부터 지금까지 89년 등 몇몇의 콜렉션을 제외하고는 검정색을 주조색으로 쓰고 있으며 전 세계에 있는 그의 매장에서 검정색 옷이 늘 지배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사진8〉 Clustering Beauty, 1998 S/S

특히 데뷔 초기의 1980년대 초반의 의상에서 블랙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사진 1, 2〉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레이 가와쿠보의 검정색 옷은 경계를 세우며 무게와 의미를 준다.

“레이 가와쿠보 의상의 압도적인 새까만 검정색은 많은 패션 저널리스트들에게 특히 억압적이거나 불온하게 까지 보였다. 레이 가와쿠보는 블랙에 있어 3가지 단계로 작업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보헤미안 블랙에서 시작한 이러한 색상의 부재는 근 10여 년간 블랙의 유행을 가져왔다. 블랙의상에 대한 그 바람이 겨우 가라앉기 시작한 1998년에 레이 가와쿠보는 개념적인 아티스트의 불가해성을 지니고 ‘빨강은 검정(Red is Black)’이라고 주장”<sup>10)</sup>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압도적인 블랙의 확장을 꾀한 디자이너이다. 결국 그에게 있어 블랙은 모든 색상을 아우르는 최종적인 색상의 귀착점이며 또한 모든 색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려한 가능성의 색채인 것이다. 이러한 블랙에 대한 그의 선호가 다른 디자이너나 대중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 들여졌던지와는 상관없이 블랙은 현대 패션의 조류에 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선호도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졌고 당분간의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블랙의 확장 내지는 선호의 중심점이 레이 가와쿠보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블랙의 확장과 가능성을 추구하여 왔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3. 한계에의 도전: 다양한 소재의 실험

레이 가와쿠보는 디자인에 있어 기존의 개념을 거부하는 도전의식을 보여주는 한편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기존에 성립되어온 의복에 관한 획일적인 개념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실험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다양한 재질의 직물과 재료를 통해 옷의 재료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특히 대량 생산된 옷감의 경직된 획일성에 도전한 레이 가와쿠보는 자신의 의상실에서 디자인하고 수공예적인 기술이나 최신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독창적인 직물을 만들었다.<sup>11)</sup>

레이 가와쿠보는 검은색 옷감을 즐겨 사용하며 디자인에 장식이 없다. 이는 미의 서구적 개념에 대항하는 이상파괴주의자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 불완전(Imperfection)이 또 하나의 미의 대상이며 이것은 자연의 허무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의 감각을 자극한다고 하며 기계는 옷감을 보다 유니폼화(uniform), 정형화시키고 있어 무언가 빠진 것, 완전하지 못한 것에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손뜨개가 최선이나 방편적으로 기계의 나사를 이곳저곳 느슨하게 풀어 불완전한 멋을 창조하길 언급한다.<sup>12)</sup>

또한 레이 가와쿠보는 여러 실험적인 직물을 염색이나 후 처리하여 사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다. 종이, 망사, 우레탄, 펠트 등과 부직포도 즐겨 사용하는 소재이다.

〈사진 9〉은 이제까지 열레강스한 컨셉이 주를 이루었던 웨딩드레스의 소재로 건조하기 까지 한 느낌의 부직포를 사용한 기존관념에 대한 도전이 엿보이는 흰색의 웨딩드레스이다. 일체의 장식을 가하지 않아 역으로 순수함이 돋보이며 스커트 자락의 아래가 끈으로 통하여 있는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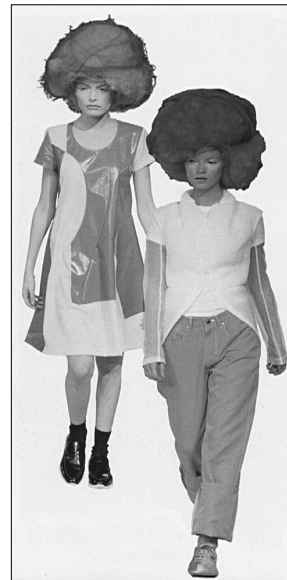
〈사진 10〉은 레이 가와쿠보의 소재에 대한 실험성이 엿보이는 디자인으로 왼쪽은 자연소재 울에 프린팅 기법으로 레드와 그린의 칼라 대비, 무광택과 광택의 대비로 포인트를 주고 있다. 오른쪽 디자인은 폴리아미드 사무스(Polyamide charmeuse) 직물에 스폰지를 본딩하여 재킷을 완성하고 폴리에스테르 트윌지의 바지와 코디하고 있다. 솜을 염색하여 뭉쳐 모자로 활용하였다.

〈사진 9, 10〉에서 보여 지는 소재의 사용은 전통과 기술과의 조화와 부드러움과 사프함의 조화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차용은 현대 패션에서



〈사진 9〉 White Wedding Dress, 1990년 F/W



〈사진 10〉 Foil print & Sponge bonded , 1996 S/S

나타나는 다양성의 공존과 이화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 III. 레이 가와쿠보 미학의 근원: 미완의 미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레이 가와쿠보의 조형세계는 불균형, 불완전, 비대칭, 미완성 등 규칙에서 벗어난 일탈의 형으로부터 전개된다. 이러한 형태는 단순한 외형 속에 인체를 인식하지 않는 새로운 형으로 제시되는데, 단순한 형태는 동양미의 특색 중 하나이다. 그 단순한 형태가 무한한 전개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전개 가능성이 곧 순수의 의미를 지닌다.

공백적인 채워지지 않는 순수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조화미를 추구하는 서구의 미와는 대치되는 것으로 레이 가와쿠보의 옷들은 기존의 서구 패션에 있어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고 패션에 있어 새로운 한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의 역할이 되었다.

레이 가와쿠보 디자인의 기본 속성인 불규칙, 불완전, 그리고 불균형들은 실제에 있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통적 일본 미학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비록 레이 가와쿠보는 본질적인 모더니스트 디자이너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일본 미학의 전통을 현대 패션의 기본 속성으로 변환시켜 발현시킴으로써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창출해 낸 것이다. 패션학자 해럴드 코다(Harold Koda)는 “레이 가와쿠보는 풍부함과 장식에 결코 못지않은 모자름과 단순함속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따르는 천년의 장구한 미적 규범에 영향을 받아왔다.”고 말해왔다. 불완전함 그 자체는 대상물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다. 이는 그 불완전함이 사물의 연약함과 덧없는 본질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얼마나 빨리 사라져 가는가를 우리가 인식할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다. 코다가 언급했듯이 가와쿠보의 스웨터에 있어 그 잡아 찢음의 미적 컨셉적 의미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런던 거리 패션의 한 요소로서 동시에 나타났던 잡아 찢고 오버사이즈된 “poor look”의 정치적이고 풍자적인 의미와는 확연히 다르다.<sup>13)</sup>고 하였다.

결국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에 있어 찢고, 매고, 풀

고, 주름잡고... 하는 미적 컨셉의 의미는 패션의 기본 개념에 관한 도전의식의 표현 형태이며 기존의 룰의 해체와 재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체와 재결합은 새로운 조형세계의 구성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패션세계와는 결별된 듯이 보이는 새로운 개념의 의복의 의미가 창출된 것이다. 이러한 신세계는 세기말의 자학적이거나 파괴적인 단절과 기존의 완성된 관습을 거부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질서의 미완성으로 야기되는 불완전함 그대로의 수용,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을 통한 불균형의 요소들을 몽환적인 이미지로 재처리함으로써 극단적으로는 현실 도피적으로까지 확대 해석되는 현대인들의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의 형태가 패션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레이 가와쿠보의 극단적 미학은 관습에 도전하고 진일보한 소비자 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했지만 가와쿠보의 일탈된 조형세계의 근본토대가 불균형, 불완전, 비대칭의 미완의 미를 추구하는 일본미학의 조형세계임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간과할 수 없도록 의미심장하다.

### IV. 결론

‘나는 새롭고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옷들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에너지와 얻고 긍정적인 것을 느끼기를 바라며 창조란 삶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다.’<sup>14)</sup>고 한 레이 가와쿠보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가와쿠보는, 1980년대 초반 데뷔 때부터 20여 년 이상을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독특한 발상으로 패션의 기본을 허무는 새로운 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다.

레이 가와쿠보의 조형세계의 특성은 첫째, 전통 일본 복식을 기본으로 한 비대칭 스타일로 체형과 사이즈, 성의 구별이 무의미한 비정형의 형으로 의복 속에서 인체의 자유로움을 부가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서로 다른 영역의 요소들이 결합한 불균형 속에서 균형감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자주 사용하는 찢고, 매고, 풀고, 주름잡고 하는 기법들과 함께 벗음과 미완성, 폐허까지도 창조의 근원으로 승화시켜 미완성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 넷째, 장식이 배제

된 극도의 절제된 선과 압도적인 블랙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다섯째, 옷이라는 닫혀진 공간을 안과 밖이 열려져 있는 확장된 공간으로 개념을 확대시킨다. 여섯째, 20세기까지의 옷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개념으로부터 옷 자체의 기능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곱째, 일그러지고 왜곡된 변종의 실루엣 창조로 미적 가치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레이 가와쿠보는 일관적으로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형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한 새로운 조형세계는 완벽한 조화가 완성된 디자인세계가 아닌 기존의 관습과 조화의 상식에서 벗어나 변형되고 왜곡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탈의 세계이다.

패션에 있어 1990년대는 미니멀리즘의 시대로 극도로 장식이 배제된 절제된 선과 색상이 디자인의 중심을 이루었다. 미니멀리즘의 트렌드 속에서 90년 대 중반부터 본격화 된 현상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 과거로부터의 가치관과 감성, 기능, 전통적 료 등으로부터의 해체와 재구성이다.

실례로 90년대 말부터의 미니멀리즘의 종말과 함께 시작된 21세기의 패션은 희망과 낙관, 절망과 회의를 함께 가지며 다채로운 색상과 장식이 풍부한 로맨틱 엘레강스 무드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다 자유로운 발상을 토대로 한 다채로운 표현들이 시도되고 있다. 21세기 콜렉션에 보여지는 패션은,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2003년 봄, 여름 파리 콜렉션을 보면 동양의 전통적인 직물과 패턴에 서양스타일의 크리놀린 드레스를, 그리고 중국 전통의 경극과 일본의 가부키의 이미지를 디자인에 차용하는 등 동양과 서양을 덧붙이고 다양한 성질들을 믹스하여 볼륨감 있는 과장된 실루엣의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유래 없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고, 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는 원피스의 상의를(안감 소재) 아래로 접어 내려 스커트 위로 오버랩시킨 뒤 메탈릭 실버탑과 매치시키는 등 이질적인 소재들을 완성된 의복에 덧붙여 미래적인 느낌의 콜렉션을 선보였다.

존 갈리아노와 마틴 마지엘라의 최근의 콜렉션을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20세기까지의 패션의 정형화된 료를 부수는, 표준화된 이미지의 파괴와 하이브리드, 크

로스 오버, 퓨전 등의 혁신적인 디자인들은 이들만의 디자인이 아닌 21세기 패션 트렌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패션의 일탈의 현상이 레이 가와쿠보 한 사람의 영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대 의상에서 보여 지는 일탈의 현상에 하나의 불씨를 제시한 것임에는 의심이 없다.

## 참고문헌

- 1) Suzy Menkes, "Feminist versus Sexist," The Times (Lodon: March 22, 1983), 11.
- 2) Harold Koda, Richard Martin, Laura Sinderbrand, Three Women: Madeleine Vionnet, Claire McCardell, and Rei Kawakubo, (전시 카타로그) FIT, February 24- April 18, 1987.
- 3)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pp. 238-239.
- 4) Valerie Steele, Women of Fashion, Rizzoli, 1991, p. 186.
- 5) Harold Koda, Richard Martin, Laura Sinderbrand, 앞의 카타로그.
- 6) Richard Martin, Harold Koda, Infra-Apparel,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p. 97.
- 7) 야후 국어사전, 자료검색일 2003, 9, 20, 자료출처 <http://kr.kordic.yahoo.com>
- 8) 身體の夢, 京都國立近代美術館, 1999, p. 154.
- 9) 예바 헬러, 이 영희 역, 색의 유혹: 재미있는 열세 가지 색깔 이야기, 예담, 2002, pp. 177-217.
- 10) Valerie Steele, 앞의 책, p. 187.
- 11)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20th Century Fashion, Thames & Hudson, 1999, p. 234.
- 12) 정성혜, 일본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25호, 1995, p. 30.  
(재인용) Leonard Koren, 일본 패션의 새물결, 월간 멋, 1984년 11월호, p. 113.
- 13) Valerie Steele, 앞의책, p. 186.
- 14) Claire Wilcox, Radical Fashion, V&A



Publications, 2001, p. 72.

- \* France Grand, Comme des Garçons, Universe/Vendome, 1998.

### 사진자료의 출처

- 〈사진 1〉 Black Wool Geometric Coat, 1983년 F/W, “Three Women: Madeleine Vionnet, Claire McCardell, and Rei Kawakubo,”(전시 카탈로그).
- 〈사진 2〉 “Lace” Sweater, 1982년 F/W, Fashion: The 20th Century.
- 〈사진 3〉 Baby Pink Sweater & Skirt, 1995년 F/W, 身體の夢, 京都國立近代美術館.

〈사진 4〉 Sweeter than Sweet, 1995년 F/W, Extreme Beauty.

〈사진 5〉 Body Meets dress, 1997년S/S, 身體の夢, 京都國立近代美術館.

〈사진 6〉 New Body Form, 1997 S/S, Fashion.

〈사진 7〉 Pleats Dress, 1998 S/S, 身體の夢, 京都國立近代美術館.

〈사진 8〉 Clustering Beauty, 1998 S/S, Fashion: The 20th Century.

〈사진 9〉 White Wedding Dress, 1990년 F/W, 身體の夢, 京都國立近代美術館.

〈사진 10〉 Foil print & Sponge bonded, 1996 S/S, Techno Textiles.

---

(2003년 9월 30일 접수, 2003년 11월 15일 채택)